

로쿠쇼 신사: 농촌 무대

1872년에 세워진 로쿠쇼 신사의 초가지붕 무대는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일본 주부지방에서 성행한 민속 예능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상기시켜줍니다. 무대는 신앙의 장이자 사교와 축하의 장이기도 한 신사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농촌 가부키 등을 감상했습니다. 예능은 주로 마을 사람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을 했지만, 순회 배우들이 공연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현재의 아이치현, 기후현, 나가노현 남부지역에는 농촌 무대가 특히 많았으며, 도요타시에만 84개의 무대가 남아있습니다.

로쿠쇼 신사의 무대는 이런 종류의 무대로는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무척 양호합니다. 천장 아래에는 받침대가 있어 배우가 오르내리는 승강 장치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정면의 굽기 약 80cm, 깊이 11m가 넘는 대들보 등 구조적으로도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 지역에서 민속 예능이 대단한 인기를 누렸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민속 예능의 인기는, 영화가 무대와 극장을 추월하게 되면서 쇠퇴했습니다. 로쿠쇼 신사의 무대는 1948년에 역할을 마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